

오늘.

98년 3차 집행부 회의 안건지

1.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들

1)신입생 오리엔테이션

①기획안

②실무단 꾸리는 문제

③일정표

④자료집

✓2)자치단체 첫 모임

3)성폭력 자치 규약

✓4)수요집회

5)휴게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

6)학생 수첩 실무

2. 각 국별 할 얘기들

1)편집위원회(준)

새내기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기획 가안

주최: 총여학생회

1998년 2월 18일 2시-4시 신상대 강당(예정) / ~~대강당~~ ^{구상대}

기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간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가능성을 제시한다.

1부 : 남녀공학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제)

비디오<남녀공학...>(재편집+추가촬영) 10-15분 정도

좌담회 <김현미 선생님과 함께> 임기호, 이현우. 승민 나

-사이- 총여학생회 소개(뒤에선 2부 무대 준비)

2부 : 멋진 여자들(가제) 사회자: 최은영 (생명공학과 95)

시작: 풍물패 (1. where R U? 2. 터얼 3. 떼 순위로 섭외)

guest 공연: 이상은/황보령 or 여성 밴드

마무리: Harrie 나

필요한 것들

▷예산: 음향기기, 조명기기(상대 신관이 아닐 경우), 섭외비, 각종 공연 기자재 대여비 대략 300만원 정도로 예상됨

▷각 순서를 매끄럽게 이어갈 사회자

▷좋은 액정과 비디오(상대 신관이 아닐 경우)

▷좌담회를 함께 할 학부생들 섭외

빌대기: 산대, 승대, 쌍대, 오늘리채

▷자문집. 예산문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고 준비할 [OT 기획단]을 꾸립시다!!

◆ 목적 : 오티 총여학생회 행사를 기획하고 전반적인 준비 및 실무를 담당한다. 또한 본 행사를 '연출'하고 진행을 책임진다.

기획단이 필요한 이유는, 총여학생회 전체가 오티 준비에 전적으로 투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문화국이 한 명밖에 안되는 관계로, 준비할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단은 순전히 어려운 현실적 조건을 '보완'해주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부를 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을 갖고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구성 : 총여학생회 3인 + 관심있는 96, 97들(여성주의 semi, 선거 team, 문화 forum team)

■ 기획단장 - 부회장(초이) ; 기획단의 총괄적인 운영을 맡는다.

■ 기획부장 - 문화국(따거) ; 기획단장과 함께 기획단을 운영하며 실무를 분배/조율해준다.

■ 실무대표 - 총무(강지) ; 총학/총여/동연 오티실무자회의에 참석하면서, 오티 행사의 예산문제 및 기자재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 실무진 4-5명

— 원소영, 구민영, 김만정, 김지영, 김후영, 최성향, 연가
초이 ~~빠~~ 나 초이 정선 승민 승민

◆ 준비 일정 :

1월 19일 - 25일

■ 오티 준비 본격적으로 돌입!!

오티기획단 구성 및 모집 공고(통신) ; 초이, 따거

기조/제목 확정 및 기획안 보완

전체 자료집 기획 내 총여 부분 기획

출연진/장소 섭외 완료 ; 초이, 따거

기자재 계약 (총학과 함께) ; 강지

예산안 확정 ; 강지

1월 26일 - 2월 1일 (구정)

■ 전 주 준비 사항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비디오 추가 촬영을 위한 기획

2월 2일 - 8일 (전체 일꾼 수련회)

비디오 추가 촬영 및 편집

자료집 내용 구상

출연진 확인

오티기획단이 구성되는 대로, 집부 회의와는 별도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행되는 내용은 집부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겠습니까?

2월 9일 - 2월 15일

■ 준비 사항 총 점검

신입생 맞이 선전 기획

자료집 원고 완료

2월 18일 행사!!

[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수신: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신: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준)

날짜:98년 1월 10일

1월 5일 총여학생회, 교과대, 또 개인적으로 참여한 두 명의 여학우와 함께 대책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크게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평가와 대책위 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두축으로 하여 이 자리에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활동 평가

- ① 1차 자보: 대책위는 일단 '김균진의 만행'을 끝이곧대로 쓸 수가 없었다. 사실 대책위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때문에 이 자보에서 쓰여질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폭력을 얘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자보가 뜨면서 언론 단위에서 관심을 보였으며('연세 문화'에서 한 꼭지의 기사를 실었다.) 이과대 학장은 이과대 여학생회장을 불러 물어보는 등의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자보 이전에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보들이 있었으나 좀 더 지속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를 한 자보라고 생각된다. 학교 측에 강한 무언의 압력을 넣은 효과도 있었다. *피싱. 주싱.*
- ② 성명서 및 김균진 면담: 성명서는 김균진 교수를 만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말실수가 아님을 깨우쳐주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가 이를 거부했을 때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터뜨리겠다는 협박용 문서였다. 목적은 달성되었으며 면담을 통해 그가 개과천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간 시험시간에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는 올해 기독교 관련 교양 수업을 맡지 않으며 학장이 될 차례였으나 탈락되었다고 한다.
- ③ 학생처와 여학생처와의 면담: 학교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언론 단위로 터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체를 요청하였으며 김균진과의 면담을 직접 주선하였다. 학생처와 만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인 여학우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학교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후의 '성폭력 학칙 제정'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학생처는 이 문제를 여학생처와 상의하라고 말했으며 여학생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운영 평가

- ① 각 자치 단체들 및 학생회에 대책위를 제안하였으나 전반적인 운영은 마치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사람 몇몇이 모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참여한 각 단위에서 개인적인 관심사 수준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 논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일 진행상황의 보고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 ② 초기에 자보를 내고 성명서를 붙이고 김균진과 만나는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진행되었으나 방향을 맞이하면서 후속대책이 지지부진해졌고 김균진의 사과는 아예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 ③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학칙 제정'까지 요구하자는 기본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학교 측에도 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함께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냉혹하게(?) 평가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해봅시다.

* *차원*

❁ 편집위원회(준) ❁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략적인 이야기들

-위상 문제 : 편집국이 아닌 편집위원회의 형태로, 참여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립적인 위상과 활동을 해 나가야겠지요?

버트, 아직은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로 돌아갈 역량이 안되므로(인력, 자원, 기술, 공간의 문제 등등..) 당분간은-적어도 창간준비호를 준비하고 어느정도의 인력이 꾸러지기 전까지는- 참여에 상당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듯.

-형식 : 연세여성(가칭)을 어떤 형태로 발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문이 아닌, 보다 깊이 있는 저널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데에 어느정도 모두들 동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월 중순을 목표로 하는 창간준비호 형식의 특별호를 빼고 올해에 2권의 책(한학기에 한 번)이 나온다면 성공적이겠지요?(내용과 질의 문제는 나중에 하고라도)

-급한불 : 사람이 모여야겠지요.

♡창간준비호는 어떻게....

-형식 : 3월에 당장 창간호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일단은 창간준비호 형식의 특별호 형식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깊이있고 학술적인 잡지의 형식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한 자료모음글이나 소개글, 참여기관지 형식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정 : 목표는 3월 둘째주 정도에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외 구체적인 일정은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진행을 시둘러야겠지요? 집부회의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내용 :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대강 정리하자면,

- # 창간 준비의 알림과 신입부원을 공개 모집(독립된 여성전문언론으로서의 야심찬 목표와 함께 전체적인 상과 기조, 성격, 방향성이 실려야 하지 않을까요?)
- # 참여와 자치단체들에 대한 소개
- # 커리뱅크와 세미나 자료글(자료학술부와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겠지요?)
- # 여성주의 cafe(그때까지 어느정도 준비될지 알 수 없음)
- # 반짝반짝 빛나는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하리가 다른 편집부원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 땡.